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

Y E O G I S T U D Y

※ 필독: 토론 하기전 읽어주세요.

토론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론은 다행히 누구랑 대화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교수님이 주제를 던저주시면 '댓글' 하나 다시는거에요! 정답이 있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나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해당 주제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 내가 아는 바가 하나도 없어도 아래있는 TIP을 통해 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쉽게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유형식이라 정답은 없는데, 주제가 다소 어렵게 느껴지시면 다른 분들 남기신 거 참고 하시거나 네이버/구글 검색해서 참고하셔도 좋아요~

- 1. 해당 주제에 대한 핵심 키워드 검색으로 자료 찾기.
 - (다음사이트 혹은 구글사이트)
 - 1) www.daum.net
 - 2) google.com
 - 3) 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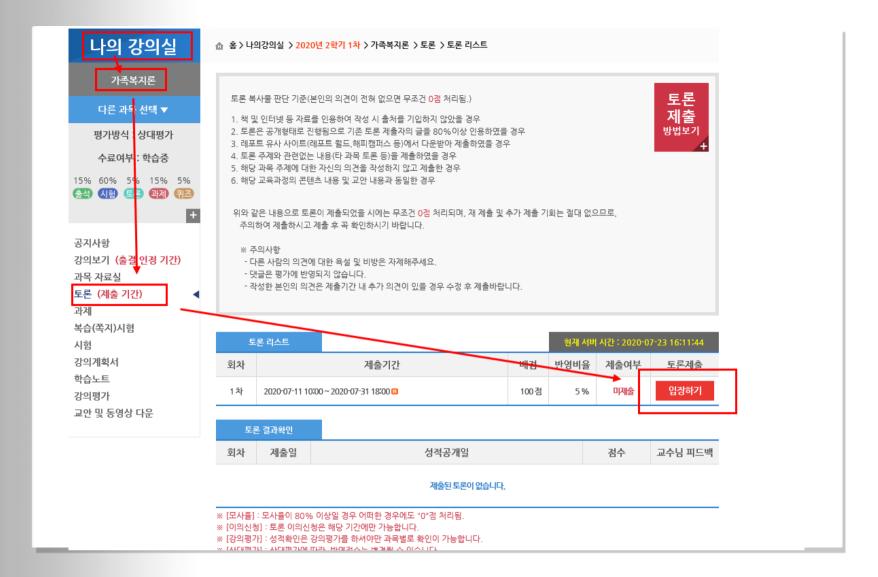
토론 주제가 나왔다면 해당 주제를 다음사이트나 구글사이트에 검색해보시면 각종 논문자료 혹은 뉴스자료들이 나올 것입니다. 해당 자료들을 여러방면으로 섞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개인생각이 포함되있어야하고 인터넷자료를 그대로 복사붙여넣기만 안하시면 됩니다!

- 2. 토론 수업은 타 학생분들의 의견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토론 수업 마감 전 2~3일 이전에 작성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토론 수업의 가장 꿀TIP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세사람 ~
 네사람 읽어보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나의 의견을 새롭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 물론 토론 역시 레포트와 동일하게 절대적으로 나의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쓰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학생들의 글을 한 번씩 확인하고 내용이 크게 겹치지 않는 선에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죠.

타 학생분들의 내용을 조금씩 발췌하되 똑같이 작성하시면 레포트와 마찬가지로 0점 처리됩니다!

1 토론제출방법



2 토론예문 1

토론 상세 내용		
제목	2020년 1학기 8차 가족복지론 1차 토론	
교 - 강사		
토론 주제	3, 보편복지에 대한 학습자 여러분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세요,	
기타 내용		
토론 평가 기준	1. 제출기간	15 점
	2. 주제내용의 부합성	30 점
	3. 내용의 독창성	40 점
	4. 분량의 적합성	15 점
	총계	100 점

보편적 복지는 워리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거나 경제적 기준(소득과 자산)과 관계없는 기준에 근거 하여 사회구성원의 일부에 국한되어 제공되는 복지를 보편적 복지라 하였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따를

보편적 복지는 이를테면 밀의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보여진다.

물론 자극히 개인적인 입장으로의 시각이지만 최대 다수를 위한 공공의 복지는 제도적으로 분명이 문제점이 존재 하다고본다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은 밀의 공리주의로 자본주의의 논리를 윤리화한 것이다. 그것은 가지각색의 대상이 인간 에게 주는 기쁨을 동일한 기준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 과연 인간에게 행복이라는 수치 를절대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예컨대 시와 빵은 본래적으로 이질적인 기쁨을 준다. 어느쪽이 공리가 큰가는 기준이 다르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그것을 잴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모든 인간이 같은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다. 카를 마르크스 는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행복을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법칙을 절대화 하는 결함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인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편적인 복지의 이행에 대한 찬반 여론은 늘 뜨거운 감자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은 기정된 사실이다.

일부에게는 생존에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편적인 복지(일례로 무상급식과 같은)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 주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나태해질 수도 있는 요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과연 자본에 입각하여 인간의 행복의 지수와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차원을 떠나 달라 잘 수 있다고 여 긴다면 반기를 표하겠다.

그러나 흑자는 말한다.

"자본이 행복을 줄수 있는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이기는 하다."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사회로 넘어가는 격변하는 이 시기에 정부에서는 절대 다수를 위한 복지 는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토론예문 3

보편복지에 찬성합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늘 세금만 내고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참으로 혜택을 받아보면 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충당해야하겠지만

어려울때 힘이되어준것같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선별복지 안이 나왔을때 내가 못받게 된다면 이번에도 나는 세금만 내고

국가에서 나한테 해준게 없겠구나 했었는데요.

혜택을 받을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또 선별복지를 했다면 선별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거고 중산층은 제외됐을겁니다. 과거의 소득을 기준하는것도 불합이한것같아서 보편적 복지를 찬성합니다.

보편복지에 반대합니다.

모든국민에게 똑같은 혜택을 줄수 있어서 좋긴 합니다만

모든 국민에게 해주기 때문에 예산이 정말 많이들어 세금이 부족할거 같아 반대합니다.

보편복지에 대해서 저는 찬성 반대가 아니라 처한 상황이나 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이나 제대로 급여를 못받고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보편복지가 더 강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하 지만 반대로 그렇다고 너무 보편복지를 강화하기엔 감사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막 쓰는 사람들도 있을거라 생각합 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보편복지 강화들이 생겼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들한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어렵고 백찰 것 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말고 정말 간절한 저소득층분들이나 생계유지가 힘들고 몸이 불편 하신 그런 분들에게는 보편복지가 꼭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